

News release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난제: 재물 보험의 일부보험 -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

- 지난 10년간 풍수재 보험 담보공백의 폭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경제적 손실액의 70%가 (1조 3천억불) 무보험이었음
- 재해 모델에 의하면, 향후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전 세계 무보험손실 규모는 매년 1,5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가장 큰 무보험 리스크는 미국, 중국 및 일본의 자연재해
- 신흥 시장의 경우, 사고금액의 80-100%가 무보험으로 처리되고 있음
- “일반 재물 리스크”까지 고려시, 일부보험으로 인한 손실액은 2,21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사, 정부 및 기타 기관들의 공조 노력과 혁신적 사고가 필요함

취리히, 2015년 9월 14일 - 스위스재보험의 최신 시그마 보고서 **재물보험의 일부보험: 담보 공백 해소(Underinsurance of property risks: closing the gap)**에 의하면, 재물보험의 일부보험 이슈는 전 세계적인 난제이다. 일부보험의 상당 부분은 글로벌 자연재해 리스크에 관한 것으로, 지난 4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사고로 인한 전 세계 재산의 총 누적손해는 USD 1조 8천억에 달했으며, 이러한 손실 중 약 30%가 보험으로 담보되었다. 보험으로 담보받지 못한 분이(프로텍션 갭¹) USD 1조 3천억에 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자연재해 이외에도 인재 위험에 대한 프로텍션 갭이 상당한 수준이며,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규모 대비 보험침투율은 낮은 수준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중산층이 부를 축적해왔으나, 보험가입 현황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지난 40년간 보험금 절대 지급액의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전 세계 프로텍션 갭 또한 꾸준히 커져왔다. 경제발전 및 도시화와 함께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 전 세계 자산 규모는 보험가입을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커져왔다.

자연재해 위험에 대한 글로벌 프로텍션 갭 모델

과거 경험 데이터 축적과 더불어, 세 가지의 주요 자연재해 위험에 (지진, 홍수, 폭풍우) 대한 모델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잠정 예상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대규모 허리케인 또는 지진과 같이, 발생 빈도가 낮은 위험은 최근 경험 데이터에 축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모델링은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Roman Lechner, Zurich
Telephone +41 43 285 2344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SwissRe

¹보험손실과 총 경제 손실 간의 차이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에는 지난 10년간 대규모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케인으로 인한 예상 손해액 규모는 아주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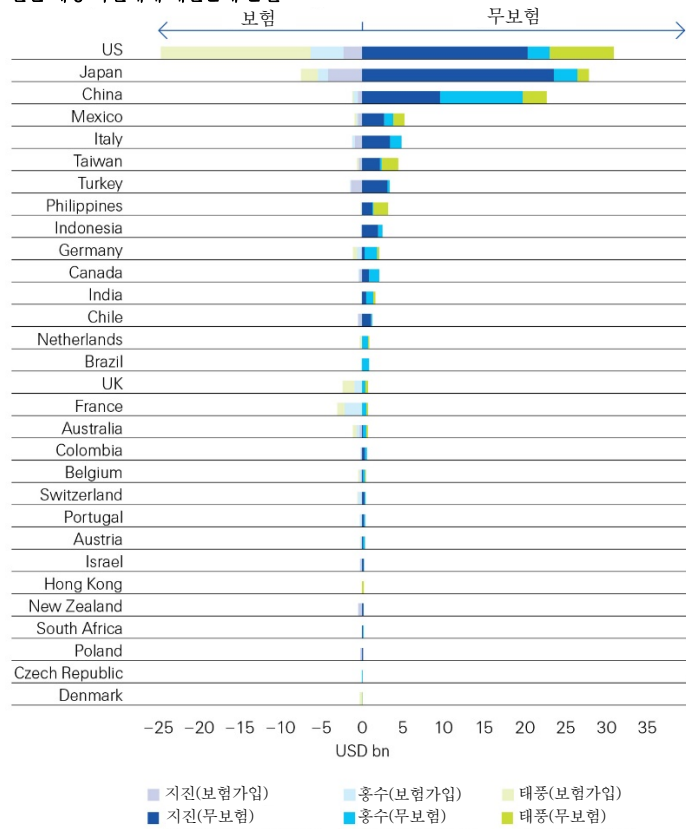
이러한 모델링의 결과에 기반해 연간 평균손해액 산정시, 현재 연간 프로텍션 갭은 1,530 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미국, 일본 및 중국이 절반 이상의 규모인 810 억불을 차지한다. 신흥 시장의 경우 평균적으로 경제 예상손해액의 80-100%가 무보험상태이며, 이는 자연재해 위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고 변동성이 큰 국가들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규모의 일부보험은 세계 3대 경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 이코노미스트 Kurt Karl 은 말한다.

"지진 위험이 미국과 일본의 프로텍션 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국에는 익스포저가 상당히 밀집된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 상당부분은 지진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진 위험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우,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익스포저가 높은 주요 공업지대의 홍수가 주요 위협요인이다.

그림 1 : 자연재해로 인해 예상되는 보험 및 무보험 손해액
 연간 예상 자연재해 재산손해 손실



주: 국가별 상세내역을 보시려면 Appendix 를 참조하십시오.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and Non-life Risk Transformation.

자연재해 이외의 리스크에 대한 일부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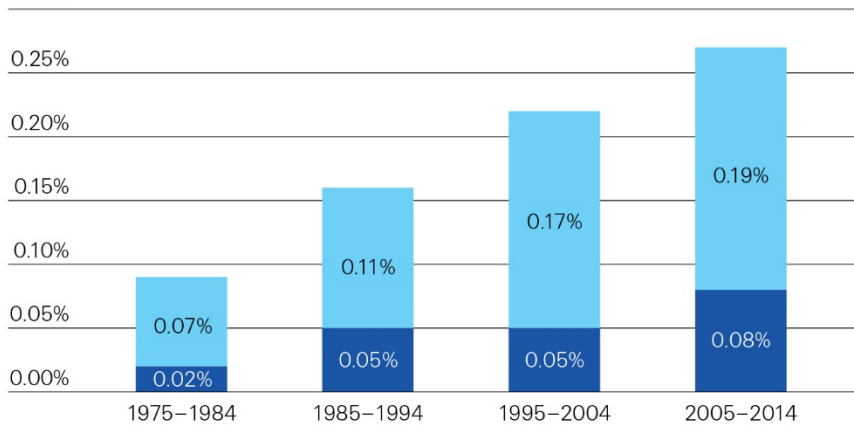
전 세계 유형재산은 자연재해 이외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는 화재, 침수손, 도난 등을 들 수 있다. 유사한 규모의 경제를 가진 국가와 비교할 경우, 많은 국가들이 상기 위험에 대한 일부보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그마에서는 상대적으로 보험 침투율이 높은 국가들을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결과 침투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680 억불에 달하는 상당 규모의 프로텍션 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일부보험 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에는 상당한 고성장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국가의 경우, 급속히 증가하는 중산층이 상당한 부를 축적해왔지만 보험가입 증가추세는 더딘 상황이다. 보험가입이 없는 자산가치 증가는 추가적인 일부보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기 일부보험 추정치는, 보험가입률이 높은 국가의 프로텍션 갭이 없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추정치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산재해 있는 위험, 그리고 사이버 리스크, 간접기업휴지 등 신종위험의 상당수가 무보험 혹은 일부보험 상태이다.

자연재해 모델링 수치와 합산할 경우, 전 세계 프로텍션 갭이 연간 2,210 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기 수치는 개인, 기업 및 정부기관에 재무적 부담을 지우기보다 보험 등을 통해 위험 전가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다.

Figure 2: Global insured and uninsured natural catastrophe losses as a % of GDP

그림 2 : 글로벌 보험 및 무보험 자연재해 손실 (GDP 대비 %)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and Cat Per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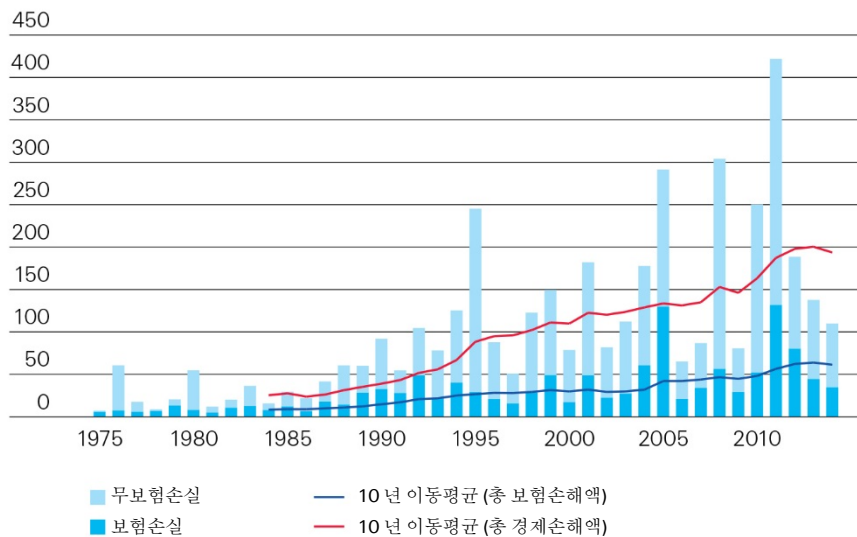
일부보험 공백의 해소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 보험지식, 보험 가격, 사후 정부 구제, 보험사에 대한 신뢰부족, 제한된 접근성 및 영업의 용이성 등이 일부보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보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한 자산가치 과소평가도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일부 대규모 자연재해, 테러리즘, 사이버 또는 간접기업휴지 리스크를 포함한 일부 리스크는 보험 가입 가능성의 한도를 테스트할 수 있다.

무보험 혹은 일부보험 상태의 기업, 개인들의 니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보험업계의 과제가 존재한다. 일부보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수치화하기 어려운 위험들에 (테러리즘, 사이버, 간접 기업휴지 등) 대해 모니터링 및 분석가능한 툴(tool)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상품, 프로세스 및 판매채널 등의 추가적인 혁신 또한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단독로 행동할 수 없다. 보험사의 담보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규제환경과 위험에 대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테러리즘 또는 고위험 홍수지역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일부보험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양측의 공조 노력과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그림 3 :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USD bil)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and Cat Perils.

Notes to editors**Swiss Re**

The Swiss Re Group is a leading wholesale provider of reinsurance, insurance and other insurance-based forms of risk transfer. Dealing direct and working through brokers, its global client base consists of insurance companies, mid-to-large-sized corporations and public sector clients. From standard products to tailor-made coverage across all lines of business, Swiss Re deploys its capital strength, expertise and innovation power to enable the risk-taking upon which enterprise and progress in society depend. Founded in Zurich, Switzerland, in 1863, Swiss Re serves clients through a network of over 60 offices globally and is rated "AA-" by Standard & Poor's, "Aa3" by Moody's and "A+" by A.M. Best. Registered shares in the Swiss Re Group holding company, Swiss Re Ltd, are listed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tandard on the SIX Swiss Exchange and trade under the symbol SREN. For more information about Swiss Re Group, please visit: www.swissre.com or follow us on Twitter [@SwissRe](https://twitter.com/SwissRe).

Accessing data by sigma:

The data from the study can be accessed and visualised at www.sigma-explorer.com. This mobile enabled web-application allows users to create charts, share them via social media and export them as standard graphic files.